

정서적 치유 위한 ‘여성힐링공간’ 설립 차질

제주도, 원 도정 공약사업으로 ‘쉽’ 공간 마련 추진 올해 예산안 심의서 연구용역 예산 삭감되며 무산도 “시행착오 줄이기 위해 필요... 예산 확보 노력”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사업인 ‘여성 힐링공간’ 설립·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연되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연말 2020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제주도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비(1억원)가 전액 삭감되면서 당초 계획의 순조

로운 이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수립한 ‘여성 힐링공간 설치·운영 추진계획(안)’에는 올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2021년 거점센터 설립하는 로드맵이 짜여져 있다. 제주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미반영으로 무

산됐다. 이 용역은 여성의 정신·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상태와 여성 힐링공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차별화된 심리치유 및 힐링공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진은 용역을 통해 국내외 여성 건강 관련 센터 사례 조사, 생애주기별 제주지역 여성건강 실태 및 욕구 조사, 도 여성 건강 관련 유관기관과의 사업 및 프로그램 분석,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도민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제주도 여성 힐링공간 운영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 운영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면서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올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힐링공간’은 여성건강을 정서적 건강·심·힐링·행복이라는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여성들이 자기 돌봄과 함께 돌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여성건강 관리자 방문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시 9개 하천 재해예방 호안정비 등 319억원 투입

제주시는 올해 천마천 등 9개 지방하천에 319억원을 투자해 호안정비 등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신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인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국비 150억원·지방비 150억원) 중 15억원을 투자해 북개구간 300m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또 원장천·이호천·한림천·문수천·한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해 8.5km 구간 호안정비 등 하천정비사업을 추진, 하천범람이나 호안유실로 인한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018년 7월 착수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천마천은 전체 사업비 215억원 중 68억원(호안정비 L=3km)이 투자되며, 2023년 준공 계획으로 전체 108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용포천은 15억원(호안정비 L=0.5km, 교량가설 4개소)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1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인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은 올해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월까지 실시 설계와 토지 등 보상을 마무리해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천정비사업 및 우수저류지 시설사업은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하천유역 홍수량 산정결과’를 반영해 하천폭 확장과 호안 보축 등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정석 정책위의장, 홍 부총리, 이 총리,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석 경제수석.

당정청 “설 차례상 부담 덜 것...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조기 시행”

새해 첫 고위당정협 열어 설 민생대책·예산 등 점검

당정청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 및 2020년 재정 조기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르면, 당정청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

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할인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 설 자금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 지원 장학금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지급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이달말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용자금리를 각각 1%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SOC, 일자리사업 등 예산 조기지출,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날 협의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된다. 국회·부미한기자 bu8385@ihalla.com

선택 2020 제주의 미래 D-99

양길현 “제주방어사령부, 외곽으로 이전”

도민유통조합 설립도 공약

무소속 양길현 예비후보(제주시갑·사진)가 6일 ‘제주방어사령부의 외곽 이전’과 도민의 생활물가를 낮추기 위한 ‘도민유통조합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방어사령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서 “연동 제방사 부지를 도민의 힐링에 부응하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 도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라수목원 기존 20ha와 제방사 20ha에 이어 민오름 20ha를 추



가해 현 한라수목원의 3배가 되는 규모의 제주를 대표하는 힐링 터가 될 것”이라며 (가칭)한라생태문화공원 조성 계획도 밝혔다.

또 “도민유통조합은 제주로 들어오는 1차산품과 2차공산품의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생활물가를 낮추려는 공익추주의 사회적기업”이라며 “도내의 도민이 출자하는 향토자본을 50%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제주도가 25%씩 출자해 공사나 상사가 아닌 전도적 규모의 제3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은지기자

국제전기차엑스포 온라인 사전등록 시작

입장료 할인 등 혜택 다양

오는 4월 열리는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대환, 문국현, 야코 보사마쉬, 알버트람)는 지난 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www.ievexpo.org)를 통해 일반인 온라인 사전등록을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일반인 온라인 사전등록은 ▷전시 등 엑스포 관람 ▷국제전기차표준 포럼·4차 산업혁명 핵심-전기차와 블록체인, 한 반도 전기차 정책 포럼 등 국제 컨퍼런스 ▷엑스포 계기 산학연수 투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 사전등록을 할 경우, 전시

장 등 엑스포 입장료 1만원을 5000원으로, 컨퍼런스 입장료 20만원을 10만원으로 50% 할인된다. 또 ▷공식 센터카 최대 85% 할인 ▷공식호텔 할인기 이용 ▷전국최초 전기차 디지털 토크 이카(E-CAR) 지급 ▷롯데멤버스와 제휴를 통해 엘페이(L.Pay)로 결제할 경우, 1000원씩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2020년 4월 29일~5월 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전통차 e-mobility를 새롭게 정의하라(The New Definition e-mobility)’를 주제로 세계전기차협의회(GEAN), 중국전기차100인회(ChinaEV100),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공조한 가운데 50여 개국에서 5만여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서귀포시 22일까지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오는 22일까지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만 18세에서 만 40세로, 2017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자, 또는 2020년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자다.

서귀포시는 서면평가 및 면접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선정 시 교육유수 등 전업적 영농에 종사하는 등 지원요건이 갖춰지면 3년간 월 80만원~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창업농 지원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총 53명 청년 창업농에 대해 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태운기자 ty9456@ihalla.com

제71주년 제주4·3복촌리희생자 합동위령제

영령들께서 제주4·3의 광풍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지도 어언 일흔한 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신 400여 신위 영령들의 원혼을 위무하고, 평화와 상생으로 가는 제71주년 제주4·3 복촌리희생자합동위령제를 봉행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08:00 유족고사
09:30 식전행사 [해금궁연 (탐모라국악예술단 차영수 명인 외 2명)]
10:00 합동위령제

장소
복촌너른송이4·3위령성지 (제주시 조천읍 복촌3길 3)

복 촌 리 장 윤인철
제주4·3희생자 복촌리유족회장 고완순

해안요양원

입소 어르신들 모십니다

입소정원 : 84명 24시간 요양시설

월산마을 한국주방 노원오거리반향
상라안의고깃 사부경철사빙함 해안요양원 한라수목원
하구 해안요양원 충신아네
월산고다리 해안요양원 미라내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산남길 159-15 (해안동)
T. 064-712-7769 F. 064-711-4870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그랜드보청기

새해맞이대할인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삼촌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